# 고은 불교 대하소설

29

## 만화의 승천(昇天)

우녀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같은 말에 합두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무전이 큰 고기 속의 벌레로 살고 있는 사실을 안 우녀의 뜻은 합두에게 바로 그런 무전에게 달려가지 않겠는냐는 것인지도 모른다. 합두는 예불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우녀를 뒤따라 갈 뿐이었다.

"이제 이 무욕도 도량도 다만 파도소리만 남겨질 때가 오겠지"라고 우녀가 어둠속의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새벽 파도소리에 대고 한마디 던지는 것이었다.

무전을 장사 지낸 뒤부터 새벽 예불도 죽비 세번을 쳐서 3배(三拜)의 큰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낸 그 자리에서 바로 좌선에 들어간다. 다만 남각만이 무전을 바다에 던지고 돌아오는 길에 파도더미를 피하다가 배의 좌관 모서리에 무릎이 다쳐 큰방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남각으로서는 아주 잘 된 일이었다. 그는 얼마전부터 도무지 좌선에 대한 짜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누가 듣지 않을 때는 소나무나 바위너설에 대고 "너희들도 괜히 좌선한다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구나! 나는 좌선이 싫다. 좌선으로 부처 된다면 부처는 열번 된다 해도 싫다. 아니 꾸벅꾸벅 졸거나 갖가지 망상만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깝기 그지 없다… 제기럴."

이런 말은 벌써 여러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만화가 남각의 이 말을 들은 것이다.

"무슨 도깨비 똥같은 소리인가."

만화가 남각의 멱살을 한번 움켜잡았다가 놓아주며 한 마디 내지른 것이다.

하지만 남각도 다른 때와 달리 만화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좌선과는 맞지 않습니다."

"맞고 맞지 않고가 어디 있어. 대추나무가지에 연이 걸리는 것이 맞아서 걸리는가. 바람에 연이 날리는 일이 맞지 않아서 날리는가. 이 사람 남각! 자네는 내 밑에서 사공노릇을 그만큼 했으면 내 생각을 짐작할 만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핀잔이 있고 난 이래 남각은 무릎뼈를 다친 것이었다.

인담은 그의 스승 담인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터득한 의약(醫藥)의 솜씨가 있어서 얼마전부터 대중의 병고(病苦)에 이것저것 처방을 내고 있었다. 남각의 무릎에는 무욕도의 북쪽 모래톱 가녁에서 구해온 모시 조개껍질을 빻아서 그것을 쑥 반죽에 섞어 붙혀주었다.

하지만 뼈를 다친 것이라 시간이 걸렸다.

"부처님 복장(腹藏)에 들어있는 금강저(金剛杵)를 꺼내다가 남각대사의 무릎을 다스려야 무릎이 제대로 움직일 모양이야… 아무튼 얼마동안 좌선 대신 와선(臥禪)을 하시게나."

이렇게 너그럽게 달래는 인담에 비해서 만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만화가 육지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배를 저어 떠났다. 양식과 그밖의 필수품들을 사기도 하고 서산의 신도들이 모아놓은 시물(施物)들도 실어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섬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루이틀 늦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녀만이 그런 생각과는 달리 아무런 내색도 않는 걱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만화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떠난지 9일이 되는데 남정네 한 사람이 건너왔다.

서산에서 만화가 충청도 내포(內浦)지방에서 일어난 민란의 한 가담자로 오인되어서 즉결로 목을 잘렸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무욕도의 수행자들은 곧 의논에 들어갔다. 너도 나도 고개를 숙여 침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담이 입을 열었다.

"몇사람이 관아에 찾아가 항의를 할 일이요. 생사람을 역적으로 몰아부친 것은 분명히 큰 잘못임에 틀림없오… 고을 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으면 한양에 소장(疏章)이라도 보내기로 합시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나서겠오."

"시신이라도 찾아서 다비의 예를 갖춰야 할 터인데"라고 누가 말하자 우녀가 나섰다.

"벌써 그 시신은 여러토막으로 잘려서 사방의 역지(逆地)에 걸어놓았거나 묻었거나 했을 터입니다."

그들은 인담이 서산으로 건너가는 일에 합의를 보고 말았다. 내일 저녁 밀물이 들 때 떼배로 떠날 인담에게 우녀가 슬쩍 찾아갔다.

그들 두 사람이야말로 무욕도의 시작이었다. 우녀가 말했다.

"이제 이 섬의 시절 인연은 다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녀가 여느 때와 다르게 인담스님을 몹시 친밀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들의 처지를 모르는 광경이라면 마치 그들은 한 쌍의 오랜 가시버시와도 같은 정분(情分)을 나누는 것으로 여길만 했다.

"만화스님은 관의 오해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만화스님의 심중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전스님보다 먼저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

"그러던 차에 서산의 소요(騷擾)에 앞뒤 생각없이 뛰어드신 것입니다."

"만화스님의 평소로 보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스님, 제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일 떠나지 마십시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들어있는 우녀의 단호한 권유로부터 인담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만약 만화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라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반문이 그의 가슴 속을 울컥울컥 뜨겁게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미 우녀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저녁 밀물이 수많은 손님처럼 밀려오는 때에 인담은 떠나지 않았다. 아니 그는 무욕도 산곡대기의 움막으로 가서 거기에 쳐박혀 앉아 있었다.

우녀가 그녀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만화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지극한 선인(善人)이었으므로 그는 중음(中陰)의 시간이 생략된채 바로 천상계(天上界)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녀가 요즘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는 것도 천상의 만화에 대한 그녀만의 골똘한 찬탄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내포일대에서 비조직적으로 일어난 민란은 15세 이하의 기민(飢民)을 잡아다가 노비로 삼은 데서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현(縣)의 아전 몇사람을 한때 볼모로 잡는 사건으로부터 발단했다.

어린 아이들을 배고픔에서 건져내어 하루에 보리밥이나 잡곡밥 한 덩어리라도 먹게 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하나의 구제일 수 있지만 그들을 영영 노비의 신분으로 만든다면 그런 조치는 관권(官權)의 만행임에 틀림없다.

때는 귀천(貴賤)의 신분체제가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양반도 3대를 넘기며 벼슬을 살지 못하면 초라한 잔반(殘飯)신세였다가 어느 사이엔가 상민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난다 긴다 하는 천속(賤屬) 가운데서 어느 위인은 하루아침에 생원(生員)이 되어 북적대는 장거리를 노새를 타고 하인을 앞세워 벽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무리 이런 판이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모자란 노비로 삼아버리는 것은 아직 양반체제의 관습으로는 도대체 옳지 못한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다 이유를 내세운 나머지 지방 관아의 착취에 맞서 일어난 저항이었다. 그렇다 하나 그들의 저항에는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소두령 같은 정도의 사람이 앞장에 나섰으나 워낙 주린 몸이어서 죽창을 들어도 거기에 무서운 투지(鬪志)의 사기(士氣)가 솟아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판에 만화가 그의 직정(直情) 그대로 뛰어들어 그들의 한 떼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나마 무욕도에 다행인 것은 만화의 삭발한 모양이 중의 신분이기보다 거사를 위한 결단으로 삭발한 것으로 알려진 일이다. 또한 그는 먹물옷을 허술한 농투성이 옷으로 바꿔입고 싸우다가 생포되었다.

워낙 관아의 수사도 정밀한 것이 아니어서 만화의 신상(身上)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겨를이 없이 처형해 버렸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이 서산의 독실한 신심을 가진 노파의 아들이었다. 만화는 그와 함께 무욕도로 실어갈 양식과 시물들을 정리하는 중에 갑자기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들은 만화가 옷을 바꿔입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사실인즉 만화는 단 한번의 대결에서 그 건장한 몸에 그물이 덮여 꼼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그물에 갇혀버리자 바로 그를 따르던 농민들은 베혀진 풀처럼 쓰러진 것이었다. 1백20명의 대부분이 피투성이 송장으로 널부러졌다.

그 누구 있어 만화의 마지막 말을 들었던 것인가.

"이제 내 원하는 바 이루어졌다."

만화의 육신은 토막났으나 그의 영식(靈識)은 곧장 천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제 만화는 그의 직전(直前) 전생의 인간이 아니다. 천인(天人) 천신(天神)이 된 것이다. 그는 이런 천인이 되기 위해서 거의 일부러 죽음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이 되어도 좋았다. 무엇이 되지 않아도 좋았다. 다만 그가 반평생 보낸 뱃사공의 삶을 통해서 가슴 가득히 채운 바다와 하늘의 그 무궁함이 피할 수 없는 용기가 되어서 빨리 다른 세상에가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지상의 무욕도에서 우녀만이 이런 만화의 축복에 넘치는 새로운 시작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만화는 그가 살았던 사바세계의 일은 그의 천상계만이 이 세계의 최초인 것처럼 기억할 수 없었다.

"잘도 가셨지!"

하고 우녀는 파도가 끝내는 섬 기슭의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물러서는 그 실패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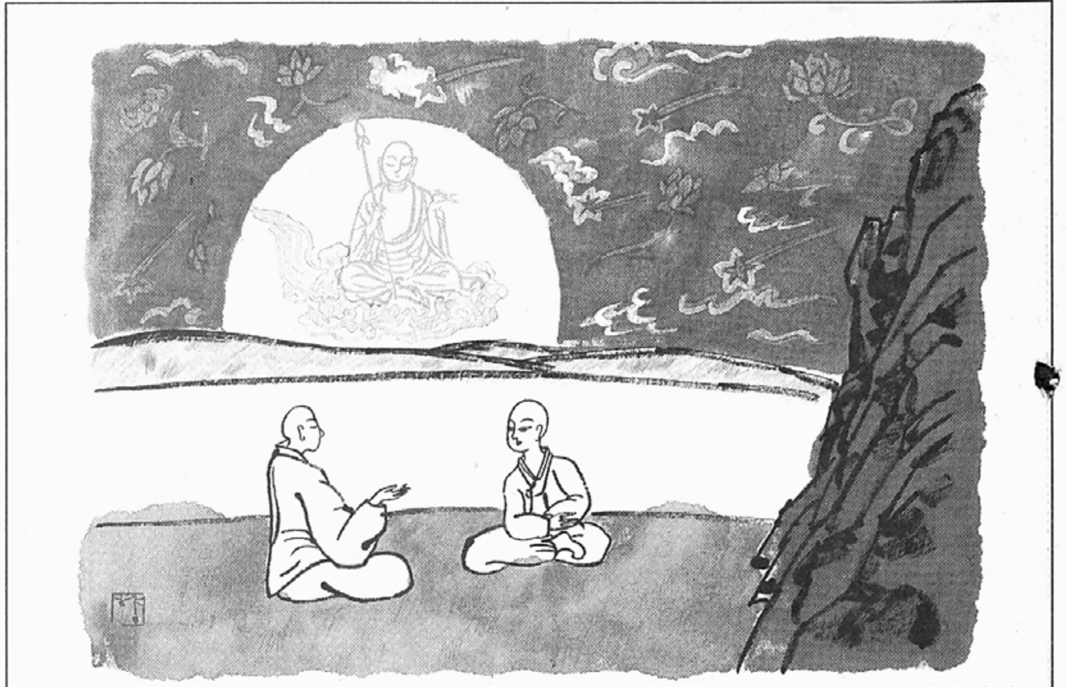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만화스님은 관의 오해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녀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만화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 지극한 선인이었으므로 그는 중음의 시간이 생략된 채 바로 천상계로 올라갈 수 있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사찰터 임야 9천평
■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 7천평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례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 문의처: 467-8329
■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총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관절염 암

샤크리지(SHARKLAGE)
*100% 상어연골로 해결하십시오!*
●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다른 기관으로 전이를 멈추게 함(ANTIANGIOGENESIS 작용)
● 연골의 퇴화를 억제하고 새로운 연골의 생성을 촉진시킴.
● 염증을 감소시키고, 치료를 향상시키며, 세포분열을 억제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각종 바이러스를 없앰.
※ 본 제품은 천연의 단백질, 칼슘, 탄수화물, 인,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수입판매원: (주) 도백 식품사업부
Tel. (02) 540-7749 (代) / Fax. (02) 540-7779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웅각 복전함
• 음성(상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범룡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웅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최근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 수시접수(725-7527~9) •장소: 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 | |
|---|---|
|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
|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
|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br>⊙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
| 대학 졸업과정 |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 (영·수) 「비디오가정교사」 특별제공(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 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